디지털 위안화 도입 추진현황과 향후 영향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이 원 호 (popiou@kdb.co.kr)

◆ 중국은 '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시 본격적인 디지털 위안화 사용을 목적으로 자국내 11개 주요 도시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시범운영중

◆ 세계 주요 화폐중 디지털 위안화의 세계 최초 상용화 시도는 위안화 국제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성공시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에 주목할 필요

□ 중국은 '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공식 사용을 목표로 자국내 주요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디지털 위안화 사용을 시범 실시중

○ 중국은 '14년 인민은행 내 디지털 위안화 전문연구팀 구성을 시작으로 디지털 위안화 도입을 추진

- '20.1월에는 복층운영시스템*, 익명성 보장 등의 원칙하에 DCEP(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 설계를 완료

* 인민은행이 상업은행을 대상으로 발행 후 상업은행이 고객(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구조

** 인민은행은 글로벌 용어인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대신에 결제기능이 강조된 DCEP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

○ '20.4월부터 11개 주요 도시*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간 디지털 위안화 유통이 성공적이라 평가될 경우, 내년 2월로 예정된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중 정식 상용화 예정

* 4개 시범도시(선전, 쑤저우, 정두, 슝안)와 7개 도시(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등)

- 최근 '21.6월초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베이징에서 주민 2천명, 약 2천개의 상점을 대상으로 완성형 시범사용을 실시

· 추첨을 통해 정부에서 무상으로 디지털 위안화를 지급하고 사용자는 핸드폰에 디지털 지갑 앱을 설치해 위챗페이, 알리페이와 같은 방식*으로 결제

* 기존의 민간 전자결제시스템과는 달리 디지털 위안화는 계좌연동과 인터넷 없이도 사용 가능

□ 디지털 위안화 도입의 주요 취지는 화폐관리 비용 절감, 자금세탁 방지 등의 목적이나 위안화 국제화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

○ 중국 관계당국은 홍콩주민을 대상으로 선전에서 역외 디지털 위안화 사용테스트를 실시('21.3월)하는 등 디지털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한 일련의 절차에 돌입

- 또한 인민은행은 다자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브릿지 연구 프로젝트*

(M-CBDC Bridge)에 참여하여 디지털 위안화의 역외결제 방안을 모색

* 홍콩 금융관리국과 태국 중앙은행이 '19년 결성한 CBDC 역외결제 프로젝트로 UAE 중앙은행도 가입

- 한편 인민은행은 SWIFT사와 공동출자하여 금융정보서비스사를 설립('21.1월)하고 디지털 위안화의 국제결제망 연결을 위한 기초환경을 마련

○ 중국정부는 디지털 위안화의 도입 목적이 화폐관리비용 절감, 자금세탁 방지 등으로 위안화 국제화와는 관계가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해외평가는 상이

- 리보 인민은행 부총재는 '21년 보아오 포럼에서 디지털 위안화는 국내용이며 달러 대체의도가 없음을 강조
- 하지만 국내외 다수의 기관이 디지털 위안화가 위안화 국제화를 가속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

* 디지털 위안화는 위안화의 국제화와 영향력 확대에 기여 예상('20.9, 산업연구원)
중국 정부의 디지털 화폐 유통 추진은 위안화 국제화를 촉진코자 하는 의도('21.1, 자본시장연구원)
미국 재무부, 국무부, 국방부,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는 디지털 위안화가 가져올 잠재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중('21.4, 블룸버그)

□ 디지털 위안화 상용화가 안착될 경우 미 달러 위주의 국제금융 시장에 미치는 장기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

○ 미·중간 무역분쟁이 격화중인 상황에서 중국정부는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

- '20.7월 영국의 British Petroleum이 상하이국제에너지거래소에서 이라크 원유 300만 배럴 거래시 위안화로 결제하는 등 중국은 세계 최대의 원유수입국 지위를 이용해 국제원유 거래에서 위안화 결제 비중을 높이고자 노력
- 한편 미국의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 이란 등의 정세를 위안화 범용화 기회로 적극 활용

· 일례로, 러시아는 '탈달러화'를 선언하고 미국채를 매도하는 한편, 국부펀드내 달러자산을 유로화, 엔화, 위안화 표시 투자자산으로 대체하겠다는 방침을 표면화

○ 디지털 위안화 거래의 완성은 낮은 거래비용과 중국정부의 노력 등에 힘입어 위안화 국제화에 일정 수준의 기여 가능

- 현재의 SWIFT 체제하 국제거래는 상대적으로 비싼 수수료와 긴 거래시간이 소요되는데 반해 CBDC 결제체제는 낮은 수수료와 빠른 거래시간으로 사용에 보다 유리

· 따라서, 주요국 중 CBDC 최초 도입국이 될 중국은 낮은 거래비용을 앞세워 '21.1월 기준 2.4% 수준(달러 38.3%)인 위안화의 국제결제 비중을 향후 지속 확대

시도해 나갈 개연성

- 특히,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의 최대 협력지역인 아프리카와 동남아 등지를 중심으로 위안화 무역결제 비중을 높이는 데 디지털 위안화가 촉매제가 될 가능성
  · '20년 수출입 각각 7.4%, 6.4% 수준인 대중무역 위안화 거래비중도 향후 동반 점증 가능할 전망

○ 또한, 디지털 위안화가 역외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달러화 결제체제와 경쟁하는 대안 체제의 등장으로 달러화 위상에 일정 변화를 미칠 여지

- JP모건은 디지털 위안화가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를 당장 흔들 수는 없겠으나, 무역결제나 국제송금 등에 편의성이 입증되면 SWIFT 시스템에 균열을 가져오며 결제수단으로서의 달러화 지위를 차츰 위협 가능할 것으로 예측('20.5월)
- 위안화 국제결제시스템(CIPS)*에 디지털 위안화가 연동되어 사용되는 경우 국제무역 결제시 위안화의 사용비율이 높아질 가능성

  * Cross-boarder Inter-bank Payment System : 중국 인민은행 주도로 '15년 출범한 위안화 결제·청산 시스템으로 '20.8월 현재 97개국 1,001개 금융사가 참여중

- 한편, 과거 이란 제재('18년)시 미국은 SWIFT를 차단하는 등의 조치로 효과를 보았으나, 향후 국가간 유사 이슈 발생시 디지털 위안화 국제결제망이 대안이 될 경우 목표 기대효과가 희석되는 시나리오도 예상 가능